계간 수필 전문 문예지/등록 2004년 6월 11일(문화관광부 바 03050)/발행 2009년 2월 23일 봄호/통권18호

계간 에세이문예

The Essay Literature and Art

수필학워크숍 지상중계 ⑱

관념적 연상과 문학적 변용

2009 | 봄

권두언 만남의 큰 의미 | 임채수

데스크 에세이 인살라 | 송명화

특별대담 박송죽

정직한 영혼의 노래를 꿈꾸는 작가 | 송명화

제2회 연암박지원문학상 姜永燦

제3회 부산수필학회상 이윤희

연재수필 이성대 정현주 김상환

신작수필 정연순 이병수 강경자 박정희 김금아 김명주 최순덕 이미당 이구익
김초성 박언지 이광회 정채상 이운순 김예나 김효주 박정은

수필학워크숍 지상중계 ⑱ 송명화 | 관념적 연상과 문학적 변용의 측면에서 본 수필 쓰기

수필평론 권대근

제18회 계간 에세이문예 본격수필신인상

이종규 이은호 이병채 서수나 정천수 전성진 최정아 노진숙

초대문단 시조 | 양원식

내 이름을 말한다 우아지

계간평 하길남 | 일상에서의 재미와 수필

에세이문예사

특별대담 18

박승죽

정직한 영혼의 노래를 꿈꾸는 작가

대담 / 송 명 화 (본지 주간 · 수필가)

누군가 여자는 사랑의 꽃불을 지피는 여신이라고 했다. 여자의 사랑은 본능이다. 이 본능인 모성적인 사랑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본능과 같은 절대적인 사랑일 것이다. 이 본능적인 모성 때문에 사경을 헤매던 자식을 살리고 운명을 달리한 한 여인의 슬픈 죽음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기억 속에서 떠올리게 됨은 웬일일까.

병원도 없는 산간벽지나 다름없는 곳에 살던 그 여인은 어린 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피를 많이 흘린 관계로 사경을 헤맬 때 너무도 급한 나머지 옛말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먹이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말만 믿고 여물을 베는 작두에다 자기 손을 잘라 죽어가는 아들에게 먹였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죽어가던 아들은 살아나고 그 여인은 자식이 살아났다는 안도와 기쁨 때문에 아픈 부위도 잊고 며칠을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한다. 그런데 그 아픈 부위에 쇠독이 퍼져 끝내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선생이 『부산수필문학』 제4집에 발표한 수필 「우주의 무게를 지닌 어머니의 사랑」의 일부분이다. 선생은 이 글에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에 무게를 실었지만 나는 그 어머니에게서 선생의 삶을 꿰뚫고 있는 정서를 느꼈다. 착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자식에 대한 절절한 사랑, 식물인간과 다름없이 된 남편을 보살핀 8년간의 고뇌,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지는 문학과의 열애를 생각해볼 때 선생의 삶도 가히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열정을 최근에 출간된 선생의 시집 『수채화 속에 그림 한 폭』의 서문에서 다시 보았다.

"내게 있어 삶이란 문학이다. 고통과 인내로 친숙한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이 바탕이 되어 문학의 본질적인 창조의 의미 안에서 심연의 깊은 곳에서 순수하고 가장 정직한 영혼의 노래가 시의 정신으로 투영되어 우리들의 삶의 한가

운데서 생명으로 용솟음치는 맥으로 박동하여 독자와 만남의 교감대를 형성하는 피돌림으로 뜨겁게 전리되어 수혈되어지는 사랑 그 자체로 산화되는 삶의 몸짓이고 싶다."

선생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셨고, 1958년 시집『보랏빛 의상』을 상재하셨고 한참 뒤 고 김춘수 선생님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에 천료하였다. 1991년 세계시인상을 수상하셨고, 그 뒤 부산문학상, 부산시인상, 부산여성문학상, 가톨릭문학상을 차례로 수상하셨다. 문단활동으로는 세계시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며, 부산여류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인회 회장, 부산시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다. 저서로는 시집『풍차는 돌고 있다』외 13권, 수필집『운명의 올을 풀면서』외 1권이 있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 보니/ 나는 예 와서 있더라./ 내 인생의 마루터/ 찢긴 상처 허덕이며/ 메마른 영혼 데불고/ 귀퉁이 잘린 세월 속에/ 누구에게도 베푼 것 없는/ 허한 빚진 마음/ 칡뿌리처럼 뻗고 있더라.

– 시집『열쇠를 찾습니다』에 실린 시「어느 날 문득 눈을 떠 보니」의 첫 연 –

선생은 마흔여섯 살이 되는 생일에 이 시를 쓰셨다. 나도 그 시절을 보냈건만 선생이 말씀하신 인생의 마루터를 지나던 날, 나는 어떤 성찰을 했던가. 나의 빚진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기대하며 선생과의 귀한 만남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해운대의 겨울 날씨는 제법 매서웠지만, 선생의 환한 미소와 따스한 악수 덕분에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두터운 외투를 벗어버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 세월이 강물이라면 이제는 천천히 흘렀으면 할 연륜을 쌓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장구한 문학인생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내 인생 여정에서 문학은 신앙과도 같았지요. 문학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양심 성찰의 거울이 되어 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학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과 상호 교통하면서 그들과 은밀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눔은 물론, 더불어 고뇌하고 아파하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뜨거운 심장에서 샘솟는 사랑으로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흰 머리를 이고 이 지상의 여정을 마칠 때가 되어서야 과연 나는 나답게 혹은 문학인답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값을 치루고 살아왔나 생각해 봅니다. 그저 부끄럽고 후회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 동안 한눈팔지 않고 문학만이 내 생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원고지 앞에 앉으면 초심 때의 가슴 설레게 하는 순수성만은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스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작가라면 누구나 나름의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 쓰고, 수필도 쓰셨던 분이니까 문학에 대한 생각이 특별하시리라 봅니다. 선생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지요?

내게 있어 시를 쓴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다져지는 소망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으로 얻어지는 자아실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는 아픈 고통으로 밝히는 세상 아름다운 빛이고 싶습니다. 마치 들꽃향기 가득하게 얼비치는 세상 아름다움 안에, 맑고 밝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참된 삶의 진리 안에 접목될 수 있는 열망으로 시,

혹은 수필이나 문학의 모든 장르에 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적인 창작은 생명의 신비이며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원형적인 숭고한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삶의 진실 그대로를 투영시킨 아픈 고뇌의 참회록과도 같은 영혼의 노래가 되어 독자와 하나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은 작가활동을 하시면서 열네 권의 시집과 두 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자신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내 생의 태반이 되어온 시나 수필에 대한 향수는 언제나 연민의 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내 생의 현주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학은 마치 광부가 금을 캐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금맥을 찾아 헤매는 것과도 같이 나 또한 작품을 구성하는 언어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방황의 길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은 무력한 내 필력으로는 시나 수필을 구성할 수 있는 소재나 언어를 찾으면 찾을수록, 쓰면 쓸수록 내 영혼의 기갈은 충족되지 못하는 갈증으로 더욱 더 심화되고 맙니다.

출판을 여러 번 하였지만 하고 나면 늘 허탈해집니다. 이번에 출간한 『수채화 속에 그림 한 폭』은 '흔적을 지우며 남기며' 라는 부제가

의미하듯이 이 지상의 여정을 끝마치라는 재촉 같은 신호를 느낍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때마다 병원 신세를 지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동안 어설픈 필력으로 그려왔던 묵화墨畵와 더러 기억 속에 남기고 싶었던 대 선배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담아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출간하였습니다만, 역시 거울 앞에 마주서서 바라보는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하였나 새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집 『수채화 속에 그림 한 폭』은 가히 선생의 문학 인생을 정리한 앨범과도 같다. 시와 사진, 축사, 자녀에게 남기는 글, 직접 그린 묵화에 자신의 발표지면 정리까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편집을 직접 하셨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리하실 때의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을 것 같다. 이 책 한 권이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유산이 되고 책 속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의 이런 진실된 삶의 자세가 자녀들을 저처럼 훌륭하게 키우는 텃밭이 되었으리라.

▣ 한동안 수필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은 시 창작에 전력하시는 듯합니다. 수필을 쓰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모든 문학의 장르 중에 가장 농축된 언어로 조립되고 모자이크 되어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혼의 노래인 시나, 진솔한 삶의 표현이 되는 수필이나 작품화하고 싶다는 열망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직 생활을 하던 남편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식물인간처럼 팔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이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남편이 돌아가시

고 난 후부터는 오래 전부터 동인으로 활동하던 〈수필 부산〉과 이해인 수녀님과 여러 문단 선배들로 구성된 〈길〉 동인으로 수필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많은 시들과 수필이 깊이 있는 명상의 기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실한 신앙생활의 영토에서 우러난 사색의 향기라 느껴지는데요. '그대'로 부르시는 그분께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여쭙고 싶으신지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답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어 그 진리 안에 걷게 하소서!!" 하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자신이라…….

▣ 나무가 스스로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별들이 혼자서 빛날 수 없듯이 우리 문인도 혼자서 그늘과 빛을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문학적 스승으로 꼽을 만한 분이 계시는지요?

무엇보다 문학의 길로 가게 문단에 데뷔시켜 주신 고 김춘수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수 선생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蘭〉 동인으로 시인 고 김민부, 박태문, 장승재, 지금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소설가 강상구,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들과 활동하고 있을 때 마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문학 지도를 하여 주실 만큼 자상하게 문학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 부산수필문학협회의 동인지인 『부산수필문학』에서 선생님의 수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에 발간된 창간호에 수록된 수필 「다시 갈 수 없는 두고 온 산하」에서 북한에 고향을 둔 선생님의 애끓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내게 있어 고향이란 아련한 물안개 속에 수초 뿌리처럼 내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분홍빛 향수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밑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한 어두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철없던 어린 나이에 오빠의 등에 밧줄로 묶여 빗발치는 총성과 공포에 떨면서 사생결단 죽음을 각오하고 임진강의 격류 속을 뚫고 남하하였지요. 기회가 되면 연작시로 40여 편 넘게 평화통일 신문에 연재되었던 것들을 북한의 실상을 해설로 붙여 출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국경 없는 하늘가/ 잡초 우거진 비무장지대에/ 산비둘기 훨훨/ 자유로이 날으건만/ 녹슨 철망 허리에 감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魔의 장막 속에/ 아버지 北에 묻고/ 어머니 南에 묻고/ 살 주린 바람 속에/ 땅 끝 적시는 이 비애의 눈물/ 우리는 왜 흘려야 하는가, 하는가/ (하략)

– 수필 「다시 갈 수 없는 두고 온 산하」 속의 시 「흙으로 그린 3 · 8선」의 일부 –

*** 전후세대인 내가 선생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 구절이 이처럼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은 왜일까? 내가 금강산을 돌아보고 휴전선을 넘어 돌아올 때 느끼던 그 가슴 아림,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며 흘리던 눈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통분 속에 선생은 판문점에서 북한 땅을 바라다보며 이 시를 쓰셨을 터이다. 절실한 체험에서 육화되어 나온 핏빛 절규이기에 나는 그의 시를 가슴으로 뜨겁게 만났지 싶다.

▣ 좌우명이 있으신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가훈이며 삶의 좌우명입니다.

▣ 등단하신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글을 쓰시는 경향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창작경향의 변천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문단 데뷔 이후에 초기 시세계는 주로 실험의식으로 출발된 난해한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타계한 맑고 순수한 존재성에 대한 사랑으로 간결한 시적 구도로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시를 쓰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집 『열쇠를 찾습니다』를 읽으면서 80년대 초반, 저의 대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울분과 허무 그리고 최루탄 냄새로 채워졌던 안타까운 시간이었지요. 선생님의 선 고운 분위기와는 다른 힘 있는 목소리 속에서 시인의 사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나 인류에 대해 가지는 작가의 사명의식이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으로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공직 생활을 할 때인데 5·16 혁명 이후 군이 모든 기관을 장악하여 〈혁명공약〉을 아침마다 선창하고 군대처럼 무조건 복종하며 죽어 살아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회과에서 부녀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잡혀온 창녀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결재서류를 지사실에 올렸으나 이틀 동안이나 미해결되어 저는 도지사 비서실의 (당시에 행정도 모르는 군인들이 총을 차고 비서실에 상주하고 있었음) 서류함을 엎어버릴 정도로 분노했고, 공직에 있으면서 데모 대열에 섰다가 다행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한일연구소 소장님이신 스승과 함께 하루 동안 구치소 신세를 졌었지요. 철창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던 그 시절에 쓴 시들을 모아서 출간한 것이 『열쇠를 찾습니다』이지요.

시인이시며 평론가이신 황송문 교수께서 그 책의 서평에서 "박송죽 시인은 숨막혀했고 아파했으며 절규하면서 차라리 죽음이 완전한 자유라고까지 현실을 개탄하면서 진정한 삶의 열쇠를 찾아 나서겠다고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다."라고 평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참 평화를 잃어가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펜 끝' 이라는 문학정신과 사명의식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선생님의 수필 「우주의 무게를 지닌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고 가장 값진 길이기에 때때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불평하면서도 여자이기에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의 배려에 감사한다.' 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축복받은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현대를 사는 여성들이 명심하고 노력해야할 점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어머니는 위대한 아이로 키운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재의 양식' 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복합 영양제나 다름없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 받은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만능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인간성을 상실한 교육이나 양육은 아이들을 사육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참삶의 길이 되어주는 자연 순리에 따라 '내 아이만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교육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이 푸르고 싱싱한 뿌리 깊은 나무로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겠지요.

▣ '독자에게 읽히는 것이 좋은 작품' 이라는 말도 하고 '문학성을 갖춘 작품이 좋은 작품' 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요즘 인기있는 몇몇 시인들의 쉽게 쓴 듯한 이해하기 쉬운 시들을 폄하하는 분들도 있고 은유와 상징 등 문학이론에 충실한 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봅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틀에 얽매인 난해함으로 인해 독자 없는 시인만이 공유하는 시가 아니라; 독자의 영혼에 위안과 기쁨이 되어 향기가 묻어나는 예술성을 바탕에 둔 시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작가는 우리 언어의 파수꾼이라 불립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매스컴을 통해 우리말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어나 외국어와의 합성, 기호 글, 정상적이라 보기 힘든 조어에 따른

생경한 용어들이 난무하여 세대 간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한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시공을 초월하여 키보드 하나만 누르면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리와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나이 탓인지 잘 적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물질문명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중적 쾌락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세계의 어느 나라의 언어보다 우수한 우리나라의 언어가 오염되어 알아들을 수 없게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하여 그저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전에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아마추어보다도 더 미숙한 화필로 묵화를 그리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목도 다치고 심한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그저 독서와 명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 선생은 겸손하시다. 내가 보기에도 선생의 화필은 유려하다. 특히 식물 그림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품을 축소하여 실었기에 책에 실린 화보에서 제대로 된 감동을 다 느낄 수는 없을 터이다. 언젠가 선생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해 보고 싶은 바람을 가져본다.

▣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속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는 한 가지 일만도 힘에 겨운 일입니다. 여성의 권익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상의 중심 안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나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한다."는 괴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남성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여성 특유의 우수한 직관력과 섬세한 감수성으로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한다면 지역이나 국가에서 바라는 유능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에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계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선생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대근 교수님과의 인연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권대근 교수님을 문단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저도 수필을 쓰는 사람으로서 권 교수님의 수필이론이 참 마음에 닿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선비적인 정신과 장인정신으로 수필이론은 물론 수필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시는 교수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술성과 문학성의 본질인 수필이 수필다워지도록 하는 선봉에 교수님이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개인 작품집을 출판하기도 무척 어려운데 [에세이문예]지의 창간 이후 오늘까지 꾸준히 발간해 온 그 저력에 갈채와 경의를 표합니다.

▣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수확을 기다리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서인 것처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기획보다는 건강이 허락하면 그 동안 발표되었던 수필과 신앙 칼럼을 정리하여 출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났으나 이 지상의 여정을 떠날 때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웃으

며 떠나는 뒷모습만은 아름답기를 염원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에세이문예]는 수필문학의 발전을 위해 본격수필을 지향하고 수필가들의 발표 지면을 늘리며 수준 높은 수필들을 실음으로써 수필가들의 의욕고취와 문학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예지에 당부와 격려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귀한 지면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문단사에 길이 남을 큰 거목巨木 수필지로 뿌리내리고 많은 수필가들의 발표지면이 되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지성과 감성적인 순수한 이미지로 처음 만남을 이루게 된 송 주간님에게도 감사하며 에세이문예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선생은 가냘픈 외모를 지녔지만 야무진 입매를 가지셨다. 크지는 않지만 깊은 눈매를 가지셨다.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한, 파도 거센 푸른 바다 같기도 한, 우물 같이 깊은 정을 담고 있기도 한, 샘물처럼 신선하기도 한 그런 분이셨다. 연륜의 깊이는 느껴지나 세대차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젊음을 느끼게 하는 분이셨다.

다소 사변적이며 철학적인 또 추상적인 용어를 즐겨 쓰시는 것은 오랜 종교생활의 영향이지 않을까. 권대근 교수는 일찍이 선생의 수필을 평하면서 '순수 영혼을 좇아 끝없이 이어지는 작가의 자아 성찰이 구도자적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교나 가식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문학이 선생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면 열네 권의 시집을 상재한 지금 선생은 그토록 희구하던 구원

의 열쇠를 찾았을 터이다. 하기에 선생의 표정은 안온하였다.

한국에세이작가연대의 전국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 얼마 전에 경주를 찾았다. 벗은 나뭇가지들이 빈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성근 가지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내 눈 속으로 우루루 떨어지고, 갑자기 눈이 시렸다. 삶이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는 뒤돌아보았건만 나목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하늘을 이고 서 있었다. 무연한 삶의 자세, 감정에 흔들리는 나의 유치함을 지적하는 듯 나목은 그렇게 의연하였다. 대담을 정리하고 보니 선생도 내게는 나목이 되지 않았나 싶다. 세월의 깊이를 안고 의연하게 삶을 딛고 서서 후배들에게 "삶이란 이런 것이야,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야. 시린 눈자위에서 눈물 한 방울 훔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야."라고 가르쳐주는 굵은 둥치를 가진 키 큰 겨울나무로 내게 다가온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본다.